

내일(My Job)이 있는 행복한 내일(來日) 설계

남원시가 올해 시정구호인 '함께 만들어 가는 더 행복한 남원'을 만들어 가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 발굴에 올인 하고 있다. 남원시는 특히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발맞춰 지역 청년 고용위기를 극복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 '내일이 있는 청년도시' 추진 전략 마련

먼저, 내일(My Job)이 있어 행복한 내일(來日) 설계이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특성 과 여건에 맞는 청년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남원시는 소셜벤처 인프라를 공동 활용한 청년 CEO양성사업 등 8개 사업에 국비 7억 4,100만원을 신청하는 등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에 사동을 걸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남원시만의 특성을 살린 청년 정책방향 및 비전을 종합적으로 마련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내일이 있는 청년도시 추진 전략을 마련한다.

▲ 청년이 머무는 남원 조성

청년이 머무는 삶은 남원에도 힘을 쏟

는다.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 사업'을 실시해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한 뒤 전역한 청년들에게 관내 복지시설 일자리와 사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하여 5월까지 4명의 청년이 취업에 성공했다. 남원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중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취업희망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청년 취업할당제'도 인기를 얻고 있다. 지역청년 취업할당제는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남원시와 16개 기관·기업체에 현재까지 모두 113명이 입사해 고향에서 청년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 남원시 소재 중·고교를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한 근로자에게는 1인당 100만원의 애향장려금을 지급(2018년 40명 예상)하고 있다. 애향장려금은 청년 근로자의 자기진작 및 애향심을 높이는 한편, 청년 인구 유출예방과 지역경제 활



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고용 유지 위한 취업지원 사업
고용 유지를 위한 청년 취업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다.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중요한 것은 고용 유지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만18~39세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는 1년 동안 매월 50만원에서 65만원을, 청년에게는 2년 동안 300만원을 지원한다. 근로자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만 15~34세 이하 생산직 근로자 분인이 월 12만5,000원씩 2년 동안 공제에 가입하면 2년 뒤에 1,600만원(이자별도)의 목돈 마

청년 CEO 양성사업 등에 국비 7억4100만원 신청

지역청년 취업할당제 인기 지역 소재 중고교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자에 100만원 상당 애향장려금 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지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종합적인 고용서비스 제공

련기회를 제공한다. 기업에도 2년 동안 총 780만원을 제공해 인력수급 및 고용 유지를 도모하고 있다.

▲ 고용서비스 원스톱 제공

이밖에, 남원시와 남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구직희망자, 저소득 취약계층, 재대군인 등을 위한 복지·취업·금융 상담, 취업알선, 일자리정보 제공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전문 직업상담사를 통한 1대 1 취업상담, 취업알선, 구인구직 정보도 제공한다. 올해는 일자리 밴드 '잡담(JobTalk)'을 새로 개설해 청년들에게 신속·편리한 일자리 정보 제공과 취업 관련 소통의 창구 역

할을 하고 있다.

일자리 수급 불균형에 의한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구인·구직 만남의 날'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올 들어 구직자 69명 중 20명이 채용돼 내일의 꿈을 가꾸어 가고 있다. 오는 9월에는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필요 인력을 알선하는 만남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 영농 정착금 지원사업과 농산업 창업지원, 청년 희망 스마트 팜 확산 사업 등 영농 기반이 취약한 청년 농업인 육성 프로젝트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성과로 이어졌다. 지난 5월 전북도가 주관하는 '2018 일자리 창출 우수 시군 평가'에서 남원시는 '우수상' 수상과 함께 사업비 5,000만원을 받았다. 남원시는 취업지원 실적, 일자리 창출 노력 등 총 5개 분야 16개 항목의 평가에서 전년대비 고용률 2.4%, 취업률 3.4%, 상용근로자 수 12.1% 등 전반적으로 고용지표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시는 "지역경제가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 확보가 중요하다"며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내일' 있는 청년도시, '도약'하는 '남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당신의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적십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제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아십니까? 적십자가 더 투명한 이유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재무투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경영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국정감사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 받습니다.



청명한 조직문화를 위해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후원금 사용내역	
01 취미계층 맞춤형 지원	51,370,679,216
02 국내 재난 구호활동	16,359,898,992
03 해외 구호활동	4,079,359,901
04 인건 지식보급	5,733,677,999
...	...
66 참여해주시는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적십자사
후원문의 1577-8179
(민원선구)

홍보대사 류수영